



오직 하나의 길

서울 선교부장 하 근 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내와 나는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딸 아이 역시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딸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딸 제니는 스스로 반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귀환 선교사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께 자주 편지를 쓰지 못하므로 여러분을 잊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은 놀라우리만치 크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나는 아내에게 선교사 시절에 살던 집을 보여 주려고 서대문의 옛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으며, 2와드 조 감독님의 안내로 겨우 그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나는 옛 집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조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옛 집을 찾아 다니면서 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인생이란 여러 갈래의 길이 나있는 낯선 도시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의 이론을 대변하는 길입니다. 새로 난 길도 있고 오래된 길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길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길이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도시에서 방향을 잃고 헤메는 사람들의 이론을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 도시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우

리는 모두 도시 안에서 길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분은 인생이라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름답게는 보이거나 목적지가 없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불행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정직한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만심에 찬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부도덕한 길이 멸망으로 통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화평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성인들이 취할 많은 양식이 그 길 가운데 있으나 그 길은 결코 지성인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긍지를 가질 것들이 많지만 결코 자만심에 찬 사람만이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그러한 도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밤에 길을 걷게 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는 친절하고 사랑스런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많은 갈래의 길이 나있는 이 인생이라는 도시에서 어느 길이 화평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를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지혜를 지니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관리 감독단 지역 관리자 임명되다

교회의 관리 감독단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도록 8명의 지역 관리자를 새로 임명하였다.

새로 임명된 이들은 관리 감독단의 빅터 엘 브라운 감독과 그의 두 보좌인 에이치 버크 피터슨 형제와 제이 리처드 클라크 형제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복지 사업, 시설, 자료 관리, 번역 및 배부, 구매, 회원 기록 업무 등을 관리하게 된다.

교회는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국에는 2백 90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85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 지역 단위로 회원들의 필요사항을 보다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프로그램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1년 동안에 세우는 교회만 하더라도 500여 개나 되며, 교회의 출판물은 17개 국어로 번역 배부된다. 또한 교회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새로 임명된 지역 관리자가 관리하게 된다.

새로 임명된 8명의 관리자 중 한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관리하게 될 분은 십이사도 지역 대표를 겸하고 있는 아더 케이 니시모도 형제이다. 당년 53세인 니시모도 형제는 미 육군 예비역 대령으로, 선교부장을 역임했으며, 27년간의 군생활 중 아프리카,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

여수 지부 대회

지난 6월 26일 여수 지부는 박 병규 지방부장의 감리로 지부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 이어서 주일 학교 성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리와 성약 4편 2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새로 부름받은 장 용택 지부장은 “물문경과 친한 친구가 되고, 희생으로 봉사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했고, 박 병규 지방부장은 “주님의 재림에 준비하고 우리 자신부터 신앙을 돈독히 하자”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지부장단이 새로 개편되어 지부장에 장 용택 형제, 제1보좌에 김 봉태 형제, 제2보좌에 장 익선 형제가 각각 지지되었다.

서울 지역 모임 성황리에 개최

한국 지역 모임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고마쯔 장로와 지역 대표 니시모도 장로를 모시고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서울 양 스테이크와 서울 선교부 산하 대전 지방부의 역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와드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130여 명의 지역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78년도 교회 정책에 관한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 대회의 전체 모임에서 고마쯔 장로는 한국에 또 하나의 스테이크가 탄생된 것을 축하하였으며, 이것이 내일의 무궁한 발전의 전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다.

순서를 맡은 토론 지도자들은 갖가지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평소에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훌륭히 발표하였다. 평가 모임에 참석한 지역 대표 니시모도 장로는 한국 성도들의 지도력에 크게 놀랐으며 이번 지역 모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한 지역 지도자들에게 감사와 찬사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지역 모임을 통해 양 스테이크의 신임 역원들은 새로운 직책과 이에 따른 의무에 대해 자세히 훈련을 받았다.

서울 지역 모임에서 토론하는 모습
위: 집행 서기 모임 아래: 아론 신권 및 청년회 모임



대전 지방 대회

지난 6월 19일 대전 지방 대회가 신축 대전 지부 건물에서 유진 피 털 선교부장의 감리로 열렸다. 회원들은 모두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판단력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선교부장의 권고를 받았다. 선교부장단 제1보좌인 박 재암 형제가 대전 지방부를 맡아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지난 2년간 대전 지방부를 맡아 봉사해 온 전 중철 형제가 춘천과 원주 지부를 전담하게 되었다.

대회가 있기 전 이틀 동안 신축 건물에 대한 일반 공개 및 전시회가 있었고 토요일에는 텐더 애플즈와 뉴 호라이즌의 공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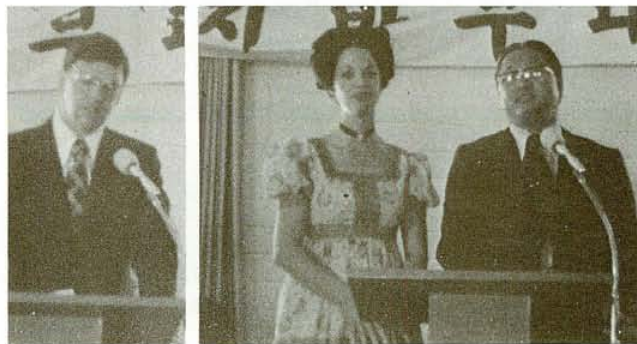
부산 지방부 운동회

지난 5월 25일, 부산 동래 공업고등학교에서 부산 지방부 운동회가 열렸다.

지방부 산하 5개 지부의 회원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동회 개최 순서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동구지부의 우승컵 반환이 있었고 한 인상 선교부장의 격려사와 이 병학 지방부장의 치사가 있었다.

육상, 장애물 경기, 오락 게임, 배구, 줄다리기 등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각 지부는 시종 치열한 열전을 벌인 끝에 광안 지부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동래지부가 2위, 영도 지부가 3위에 머물렀다.

줄 다리를 하고 있는 부산 지방부 성도들



말씀하시는 털 선교부장(좌)과 그 부인(우)

부산 지방부 모내기 돕기 참여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부산 지방부에서는 부산 근교 양산에서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모여 일손이 바쁜 시골 모내기를 도왔다.

대신권 상이회에서 주관한 이번 색다른 행사는 모내기에 경험이 없는 회원들과 특히 선교사들에게 기억에 남을 활동이 되었다. 이들은 서투른 솜씨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여 함께 일한 농촌 사람들에게 말일성도의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모심기를 하고 있는 부산 지방부 성도들



춘천 지부 예배당 기공

6월 13일 오전에 춘천 지부 예배당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서울 선교부의 유진 피 킬 선교부장과 박재암 형제, 전 종철 형제가 이 식에 참석했다. 춘천 지부 예배당은 건축 책임자인 김 상호 형제가 관리를 맡아 짓게 된다. 이 예배당은 춘천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훌륭한 장소가 될 것이다.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는 서울 선교부장단과 춘천 지부 성도들

가정의 밤 안내 소책자 “바로 다음 주부터”

비회원에게 가정의 밤을 소개하기 위하여 서울 선교부에서는 새로운 소책자와 필름스트립을 제작하였다. “바로 다음 주부터”란 제목이 붙은 이 소책자는 가정의 밤 시간에 사용되는 공과와 그 사용법이 본보기로 실려 있다. 또한 같은 제목의 필름스트립은 영원한 축복을 받아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가족 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책자와 필름스트립은 가정 단위로는 물론 개인도 사용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선교부 공보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가정의 밤 안내 소책자와 녹음테이프와 필름스트립



나부 시장으로 선출된 물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인 조지아주 출신의 월터 휴 피어스 형제가 일리노이주 나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844년 6월 27일 순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잔여 임기를 잇기 위해 임명된 다니엘 스펜서 시장 이후 처음으로 선출된 물몬이다.

나부시는 인구 1,200여 명인 소도시로 말일성도와는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이다.

그는 취임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세운 도시에서 일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예언자가 거닐었던 도시에 살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초기 교회 회원들이 보고 경탄했을 강산과 명소를 보며 살게 되어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동서 스테이크 합동 배구 대회

지난 6월 18일, 서울 스테이크와 새로 조직된 서울 서 스테이크 산하 와드와 지부가 배구 대회 결승전을 가졌다.

그동안 각 와드 별 대항으로 시합을 가진 끝에 결승에 진출한 인천 와드와 4와드가 이날 최종 게임을 치루었다.

결국 동서 스테이크의 대결이 되어 버린 이날 경기는 서울 서 스테이크 산하 인천 와드가 우승함으로써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4와드가 2등 그리고 1와드와 화곡 지부가 공동으로 3등을 차지하였다.

배구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